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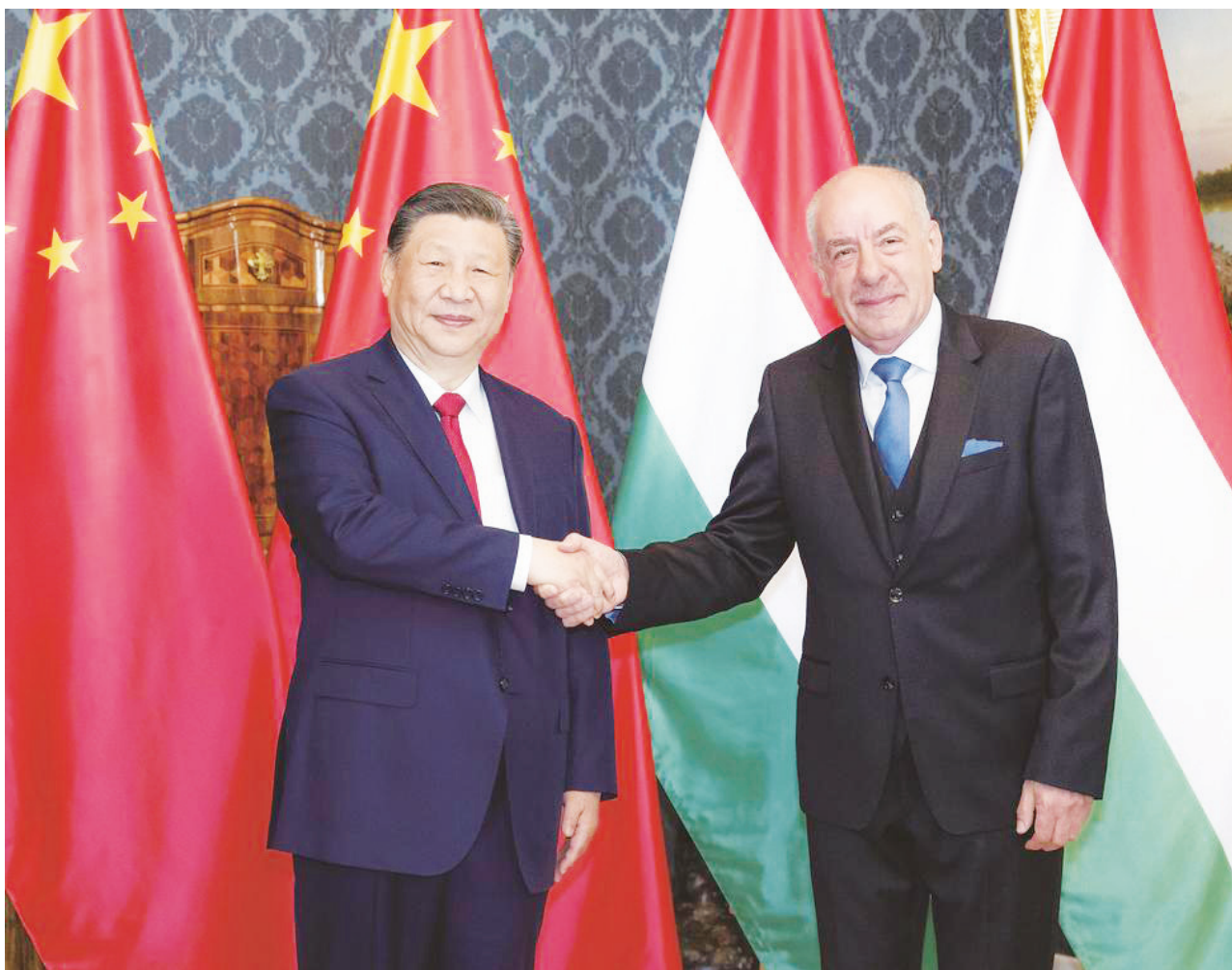
## 습근평 웅그리아 대통령 슈요크와 회담

【부다페스트 5월 9일 일일 신화통신】 현지시간으로 5월 9일 오전, 국가주석 습근평은 부다페스트 대통령부에서 웅그리아 대통령 슈요크와 회담을 진행했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웅그리아는 가장 일찍 새 중국을 승인한 국가중의 하나이다. 수교후 중국과 웅그리아 두 나라는 시종일관 상호존중, 평등상대, 호혜상생의 리념에 따라 국제 풍운변화의 시련을 이겨내고 대륙간 훌륭한 벗과 친선협력의 동반자에서 전면적 전략 동반자로의 지속적인 심층 발전을 실현했다. 당면 두 나라 관계는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에 놓여있다. 전통친선은 민심에 깊이 뿌리내리고 제 분야의 협력 성과는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올해는 중국과 웅그리아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중국은 웅그리아와 함께 전통친선을 계승하고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며 호혜상생을 강화함으로써 중국과 웅그리아 관계가 부단히 더 높은 수준으로 매진할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난 75년간 중국과 웅그리아는 평온한 발전을 유지했다. 쌍방은 소중한 경험을 총화하고 미래의 길을 명확히 해야 한다. 첫째, 평등 상대를 견지하고 자국 국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걸어 운명을 자신의 수중에 확고하게 장악해야 한다. 중국과 웅그리아 사이 세대적 친선은 제3자를 상대한 것이 아니고 제3자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둘째, 상호 신뢰와 상호 지원을 견지하고 시종일관 상호 리해하며 서로의 주권과 안전, 발전 리익을 확고하게 지지해야 한다. 셋째, 협력상생을 견지하고 '일대일로' 공동 건설 구도내에서 제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며 두 나라 발전전략의 접목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공평정의를 견지하고 력사의 정확한 면에서 인류의 평화와 발전 사무를 위해 적극적인 기여를 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중국은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 민족부흥 위업을 전면 추진하고 있



▲ 현지시간으로 5월 9일 오전, 국가주석 습근평은 부다페스트 대통령부에서 웅그리아 대통령 슈요크와 회담을 진행했다.

다. 이는 국제사회를 위해 거대한 기회를 제공해줄 것이다. 중국은 웅그리아 벗들이 중국식 현대화 발전의 패색렬차에 오르는 것을 환영한다. 중국은 웅그리아와 함께 정치적 상호 신뢰를 드팀없이 심화하고 중국식 현대화와 웅그리아 '동부예로의 개방' 전략이 한층 더 밀접하게 접목되도록 추진하며 실무협력 발전 예비를 발굴하고 제 분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다. 중국은 웅그리아와 함께 '일대일로' 공동 협력과 중국-중동부유럽 국가 사이 협력 방향을 인도하고 협력을 심화하길 바란다. 웅그리아가 올 하반기 유럽동맹 의장국을 담임하는 것을 계기로 중국과 유럽동맹 관계의 안정하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길 희망한다.

슈요크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올해는 웅그리아와 중국

이 수교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수교 이래 두 나라는 시종일관 상호 존중, 상호 신뢰의 정신에 따라 쌍무관계를 발전시켰다. 2017년 두 나라가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건립한 후 제 분야의 협력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습근평 주석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 창의를 제창하고 기초시설과 상호 련통 등 분야에서 웅그리아에 실리를 가져다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 습근평 주석은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전 창의, 글로벌 문명 창의를 제창하고 국제 대화와 협력을 주장했다. 이는 당면 세계가 직면한 각종 도전을 해결하고 진영대항을 방지하는 데서 더없이 중요하다. 웅그리아는 이를 높이 찬양한다.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웅그리아의 기정방침이다. 웅그리아는 중국과의 래왕을 밀

접히 하고 발전전략의 접목을 강화하며 웅그리아-세르비아 구간 철도 등 중점 협력 항목을 추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려 한다. 웅그리아는 습근평 주석의 이번 력사적인 방문이 두 나라 사이 전면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새롭고 더 높은 수준으로 격상시킬 것이라 확신한다. 중국은 친환경 발전 방식의 전환, 청결동력자원 등 분야에서 선진기술과 경험을 갖고 있다. 웅그리아는 더 많은 중국 기업이 웅그리아에 투자하는 것을 환영한다. 쌍방이 계속해 협력을 추진하고 웅그리아-중국 이중언어학교와 공자학원을 잘 운영하며 두 나라 사이 문화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

채기, 왕의 등이 상술한 행사에 참석했다.

/ 신화사

##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 표지 · 마스코트 공개



▲ 동북도서교역박람회 표지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장춘국제회의전시센터에서 개최되는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의 표지와 마스코트가 일전 공개되었다.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의 표지는 5권의 펼쳐져있는 도서를 주체로 설계되었는데 상단에 있는 4권의 남색도서는 길림, 료녕, 흑룡강 3개 성과 내몽골자치구를 상징하고 하단의 녹색도서는 우뚝 솟은 장백산을 상징하며 상하가 련결되어 공동으로 '미'(美)자를 구성하여 이번 도서교역박람회의 아름다움과 서향의 분위기를 교묘하게 융합시켰다. 도안은 전체적으로 도서라는 담체를 통해 동북지역의 문화바탕과 지역특색을 보여 주며 만남에 대한 행복한 기대를 표현하고 열독에 대한 아름다운 동경을 전달했으며 이번 도서교역박람회의 '길림성에서 만남을 약속하고 함께 책향기 속에 빠져보자'(相约吉地 共沐书香)는 주제를 보여주어 팔방의 손님들을 초청하는 개방되고 아름다운 길림성의 열정을 전달하였다.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는 동북지역에서 전면독서를 심화하고 서향사회를 구축하며 출판발행산업의 고 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상징적 문화활동으로서 동북도서교역박람회 브랜드를 한층 더 구축하고 박람회 IP를 확장, 개발하기 위해 3개의 마스코트를 설계했다.

송영영(松迎迎): 설계 령감은 희귀수종인 흑송에서 온 것으로 '송문영객'(松门迎客)을 의미한다. 송은 '손님맞이'의 뜻을 갖고 있어 동북사람들의 열정적이고 손님접대를 좋아하는 성격을 상징한다. 흑송은 장춘시의 도시 나무(市树)로서 장춘이라는 이 도시의 손님에 대한 환영과 존중을 대표하고 있다.

록정정(鹿程程): 디자인의 령감은 꽃사슴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슴이 앞을 향해 내달린다'(鹿跃前程)는 뜻이다. 동북은 꽃사슴의 고향이며 꽃사슴 또한 동북의 자연생태와 지역특색을 대표한다. 이와 동시에 꽃사슴은 길상, 건강, 장수, 유망한 전도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서열열(书阅阅): 디자인 령감은 문

화 전승의 매개체인 도서에서 비롯된 것으로 '독서로 만나는 아름다움'(阅见美好)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도서교역박람회가 열독을 보급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취지를 구현하는 것은 도서박람회가 업종 교류와 문화 전파의 플랫폼이라는 것을 대표하며 사람들이 열독 과정에 끊임없이 자아를 제고하고 아름다움을 만나고 미래를 보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이 마스코트 캐릭터들의 디자인은 동북지역의 대표적인 요소인 꽃사슴, 흑송과 이번 도서교역박람회의 핵심인 도서를 융합하여 3자의 창의적인 결합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및 지식 부능(赋能)의 아름다운 미래 비전을 묘사하였다.

한편, 동북 3성과 내몽골자치구에서 처음으로 공동 개최하는 대형 도서교역박람회인 제 1 회 동북도서교역박람회는 업계와 독자들의 광범한 주목과 관심을 받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출판그룹, 인민교육출판사 및 천진, 산둥, 강소, 안휘, 호북, 길림, 료녕, 흑룡강, 내몽골 등 성, 시, 구의 대형 출판발행기업들이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확정했다. 도서교역박람회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약 600 개의 출판, 발행 및 관련 문화 기업들이 참가하게 된다.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장춘 주회의장, 길림 전 성에 분포되어있는 12개 오프라인 분회의장, 전국을 복사하는 16개 온라인 분회의장은 동시에 도서, 정기간행물, 디지털출판제품 등 우수출판물 40만종 좌우를 전시판매하게 된다.

/ 길림일보



송영영

록정정

서열열

## 전국적인 사진대전 및 서화전 연변에서 개막



5월 9일, 길림성문학예술계련합회가 주최한 '강기공정'—'중화민족 한가정·한마음으로 중국꿈 실현' 전국사진대전, 전국명가유화작품전, 전국서예명가작품초대전이 연변로동자문화예술센터에서 개막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수많은 유명 촬영가, 미술가, 서예가들의 정품력작들이 집결, '중화민족 한가정·한마음으로 중국꿈 실현'을 주제로 도합 1,300 여점의 사진작품들과 100 여점의 미술 및 서예 작품들을 전시했다. 이번 전국사진대전은 소수민족 소재를 위주로 56개 민족의 민속풍토, 자연풍경, 생활순간을 전람회에 응집시켰으며 또 길림성의 서장 지원, 신강 지원 사진작품 및 새로운 시대 길림 진흥발전, 광범한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반영한 사진작품, 더우기는 중국사진금상 수상자들의 작품들도 선보였다.

이번 전시는 촬영가들이 중화문화의 립장을 고수하고 진실한 민족, 민속 사상을 기록하며 정신적 높이, 사상적 깊이, 예술적 온도를 갖춘 작품들을 통해 중국이야기를 잘 들려주고 중화문화가 더욱 잘 세계로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 길림일보



연변의 5월은 지역 명물인 사과꽃이 활짝 피어나 세상 사람들을 반기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다. 요즘 들어 국내 유명 관광지도 급부상하고 있는 연변은 사과꽃속의 아름다운 풍경이 도처에 펼쳐져 연변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겨주고 있다.

/ 박경남특약기자